

그림에게 말 걸기 11

생명력을 그리다 _ 세라핀 루이

글: 남우주 그래픽 디자이너 / 무지크바움 실장

한 여인이 의사의 부축을 받으며 새로 배정된 방으로 들어온다. 침대에 걸터앉은 그녀는 어딘가 낮이 나가 있다. 땀가에 집중하는 모습이 아니라 온몸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 껍데기만 남아있는 듯하다. 방은 온통 하얀색이다. 작은 침대 하나와 세면을 할 수 있는 새하얀 물항아리, 그리고 정갈하게 갠 수건이 놓여있다.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여인은 반대편으로 난 쪽문을 발견한다. 문에 붙어있는 창문으로 창밖의 풍경이 내비치자 놀란 그녀는 천천히 몸을 움직여 문을 열었다. 테라스에는 언젠가 본 듯한 철제 의자가 놓여있다. 여인은 의자를 들고 언덕을 올라간다. 그리곤 집채만 한 아름드리나무 아래 의자를 놓고 앉았다. 바람이 분다. 고단한 몸을 위로해주며 몸 안을 휘돌다 손끝으로 빠져나오던 자연의 언어를 지금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1932년 피해망상과 섬망(Delirium)으로 클레르몽(Clermont)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1942년에 생을 마감했다.

마르탱 프로보스트 감독의 2008년 작 영화 <세라핀>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 작품이 세자르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자 화가 세라핀은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영화는 사람들에게 세라핀이라는 인물을 강렬하게 각인시켰다. 게다가 강한 생명력으로 불타오르는 듯한 그녀의 그림은 영화의 여운을 오래 남게 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난 뒤 문득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찾아들었다. 감독이 그리려고 하는 세라핀의 모습이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일까. 영화는 일관되게 하나의 방향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래서 좀 더 세라핀의 삶을 찾아보기로 했다. 자료를 찾아볼수록 세라핀의 삶과 그림은 알 듯 말 듯 여러 갈래로 빠져나갔다. 그녀는 과연 무엇을 그렸을까? 이 글은 베일에 싸인 화가와 그녀의 영감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에 관한 이야기이다.

영화적 시선, 성모 마리아의 계시를 받다

1914년* 독일 출신의 미술 평론가이자 미술품 수집가인 빌헬름 우데(Wilhelm Uhde)가 모종의 이유로 파리를 떠나 프랑스 상리스로 이주한다. 어느 날 주인집 아주머니가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저녁 식사는 중산층 계급의 가식적인 이야기와 냉소로 넘쳐났다. 그 자리가 불편해서인지 한마디도 하지 않던 우데는 모퉁이에 세워져 있던 나무패널 그림 하나를 발견한다. “누가 그린 겁니까?” 놀라서 묻는 우데에게 주인아주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한다. “세라핀이 그렸어요. 왜 우리 집 가정부 있잖아요.” 우데는 자신의 집에 몇 번씩 들러 청소를 하는 남루하고 어딘가 투박해 보이는 여인을 떠올린다. 이렇게 우연한 기회로 우데와 세라핀은 평론가와 화가로서 만나게 된다. 우데는 세라핀에게 그림에만 매진하라고 독려하지만, 얼마 후 1차 세계 대전이 터지고 급하게 상리스를 떠났다. 13년이 지나 상리스에서 열린 지역 미술전에서 세라핀의 그림을 발견한 우데는 그녀의 거처를 찾아간다. 그 후 그는 몇 년간 물질적

* 실제로 우데는 1912년에 상리스로 이주했지만, 감독은 드라마틱한 만남을 강조하기 위해 년 도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도움을 주며 세라핀에게 전시회를 약속하고 미술계에 그녀를 알리는 데 노력했다. 하지만 1929년에 불어닥친 대공황에 세라핀의 전시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물질적 지원도 줄어들었다. 연기된 전시회에 실망한 채 홀로 남아 그림을 그리던 세라핀은 점점 알 수 없는 행동을 했다. 한밤중에 성당에 몰래 들어가 성모마리아 석상을 핑크로 칠하기도 했고, 어느 날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뒤 동네를 돌며 자신의 가재도구를 집마다 놓아두었다. 수상히 여긴 마을 사람들의 신고로 세라핀은 클레몽트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1942년에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다.

감독은 세라핀이 일종의 종교적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림을 그린 것처럼 연출한다. 그녀의 좁은 방에는 성모마리아 상이 있고, 그녀는 수많은 촛불을 켜 다음 성가를 부르며 그림을 그린다. 정육점 일을 도우며 몰래 동물의 피를 담고, 성당 촛불의 촛농을 훔쳐서 오묘한 색을 내기 위해 자신만의 실험을 한다. 그리고 성모마리아 상을 보며, “준비됐습니다.”라고 중얼거린다. 이 이야기로만 세라핀을 접하면 그녀는 종교적 계시로 인해 천사가 시키는 대로 그림을 그린 화가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면 그녀의 작품은 영적인 무엇이 세라핀의 영혼을 통해 나타난 신비로운 그림이나 성모마리아에게 바치는 헌화로 변모된다.



Pommier (1928~1930)
/ www.artnet.com



L'Arbre de vie (1928)
/ musees.ville-senlis.fr



Le bouquet de feuilles (1929-1930)
/ galeriedinavierny.fr

우데의 시선, 비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을 알아보다

세라핀을 미술사에 편입시키고 작품 활동에 큰 도움을 준 우데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묘사했다. 우데는 세라핀의 그림을 ‘나이프 아트(Naive Art)’라는 말 대신 ‘모던 원시주의(Modern Primitive)’로 불렀다. 그는 유명해지기 전의 피카소와 브라크를 발견했고, 나이브 아티스트로 치부되던 앙리 루소를 세계적으로 알린 평론가였다. 그리고 새로운 감각의 화가, 일명 ‘모던 원시주의’ 화가를 발견하는데 한평생 힘을 기울였다. 그는 그들의 소박한 스타일을 고양된 정신의 표현으로 봤으며, ‘나이프’라는, 비전문가의 뉘앙스가 강한 말 대신 미개척의 미학을 발견한 원시주의 화가로 이들을 명명했다. 우데는 미술사의 고정관념에 지배되지 않았다. 새로운 그림을 발굴하기 위해서 미술적 테크닉과 화가의 이력을 보기보다는 낯선 감각을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영화 속 우데도 그랬지만, 그가 남긴 저작에서도 세라핀을 ‘천재’라는 말로 규정했다. 이는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주류에 편입시키려는 전술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세라핀의 작품과 삶을 바라보는 데 또 다른 편견을 심어준 역할도 했다. 우데는 세라



L'arbre de paradis (1930)
/ awarewomenartists.com



Grappes et feuilles roses, vers (1929)
/ awarewomenartists.com



L'Arbre rouge (1928)
/ sylviehermetcarroy.wordpres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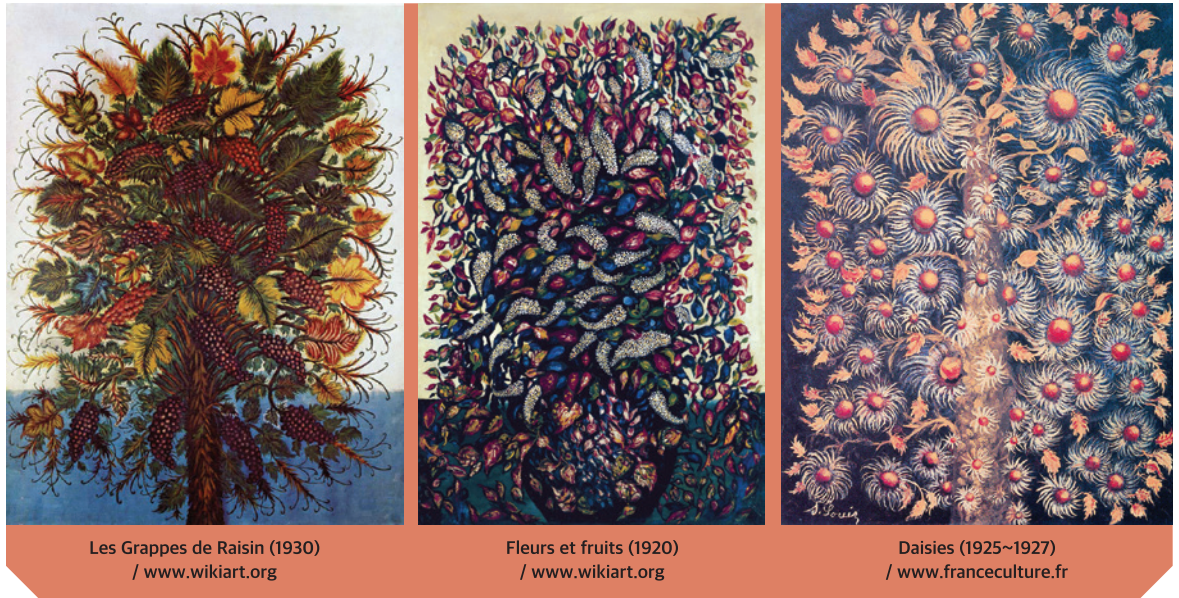
핀에 대한 기록을, 그를 만나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했던 1927년에서 1931년 사이에 주로 남겼는데, 이상하게도 세라핀의 죽음을 1942년이 아니라 1934년이라고 그의 책(Five Primitive Masters)에 밝히고 있다. 세라핀에 대한 관심이 단지 자신의 심미안을 증명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로 세라핀을 천재라고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를 미술사에 소개하는 데 공을 들인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데가 말한 것처럼 비운의 ‘천재’ 혹은 범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세라핀을 바라본다. 이 시각으로 보자면, 이제 그녀의 그림은 비범한 천재의 결과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갈로트(H. M. Gallot)의 시선, 광기를 그리다

청년 시절 세라핀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정신과 의사 갈로트는 세라핀을 구성하는 또 다른 단서를 제공한다. 그는 세라핀의 일상과 대화를 기록으로 남긴 바 있다. 그에게 세라핀을 소개한 사람은 상리스의 부시장이었던 그의 할아버지였다. 갈로트의 할아버지가 1927년에 열린 상리스 지역 전시회에서 세라핀을 설득해 그녀의 작품을 걸었던 장본인이었다. 할아버지는 갈로트에게 “세라핀은 조금 엉뚱한 청소부지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그녀와의 만남을 도모한다. 갈로트와 그의 할아버지는 어느 토요일 시청 앞에서 무작정 기다린 끝에 세라핀을 만났다. 갈로트에 따르면 세라핀은 튼튼한 인상에 주름진 얼굴을 하고 주근깨가 박혀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사는 방향으로 같이 걸으며 사소한 잡담을 나눈다. 그런데 그림 이야기를 꺼내자 세라핀은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 한 달 후 갈로트는 세라핀 집을 찾아가다. 분명 인기척이 있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 후 갈로트는 서너 번 더 세라핀을 만났는데, 세라핀은 자연, 나무, 꽃, 동물, 새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다고 한다. 그가 남긴 세라핀과의 대화 중에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드물었지만, 갈로트는 이 말을 기억해냈다.

“나는 빛과 색, 광선을 좋아해요. 내가 하는 집안일은 어두운 일이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기쁨이고 밝게 빛나요. 하지만 어렵죠... 어려워요...”

갈로트는 그녀를 농부 같은 특유의 순진함과 투박함으로 약간 이상하게 보이긴 했지만, 정신적 의미에서 백치는 전혀 아니라고 단언했다. 다만 세라핀이 오랫동안 피해망상과 섬망 증상을 겪고 있었을 거로 추측했다. 그는 세라핀이 정신적 억압에서 비롯된 열정적인 힘이 터져 나와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한다. 부단하게 그림을 연마한 결과 미스테리한 인간의 정신을 캔버스에 담은 위대한 화가로 믿었다. 그의 시각에 동의한다면, 이제 그녀의 작품은 잘 형상화된 광기가 될 것이다.



세라핀은 말이 없다

종교적 계시를 캔버스에 투영한 화가, 천재적 감각을 갖고 태어난 화가, 섬망의 열정을 캔버스에 그려놓은 화가 등 세라핀에 대한 여러 갈래의 시각이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세라핀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이야기에서 빠진 것은 세라핀의 목소리였다. 많은 화가가 인터뷰하거나 자기 생각을 기록했지만 세라핀은 청소를 하고 남은 시간엔 그림을 그리는 일에만 열중했다. 그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1905년으로 알려졌지만 우테의 지원을 받은 1927년부터 1930년까지 100여 점이 넘는 작품을 남긴 것만 봐도 그녀가 25년간 얼마나 부지런히 그림을 그렸는지 알고도 남는다. 그녀는 자신의 예술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표현할 세련된 언어를 갖지 못했던, 표현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간에 세라핀은 말이 없다. 투박한 인상, 어딘가 단편적이고 연결되지 않는 대화들. 남들과 좀 다른 성격과 하층민의 일상 그리고 그녀의 그림이 얹혀 사람들의 기억과 기록으로만 형상화됐다.

세라핀, 나는 살아있다

세라핀의 그림은 자연과 연관된 것들이었다. 꽃, 나무, 과일 등. 그림은 정적인 식물을 그렸지만, 결코 정적이지 않다. 줄기는 측수같이 섬뜩하고 포도송이는 과육을 머금은 과일이라기보다는 독을 품은 위험한 벌레처럼 보인다. 불타오르는 듯한 이파리와 캔버스를 짝 채운 꽃과 과일은 자연의 현현처럼 낯선 경이를 선사한다. 날것의 느낌. 그러면서도 그녀만의 감각이 오히려 드러나는 작품은 기존 정물화에 익숙한 사람들을 전율케 한다. 세라핀은 사시사철 변하는 환경에도 묵묵하게 있을 틈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식물과 자신을 동일화한다. 외롭고 가난한 그녀는 스스로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캔버스에 투영했다. 이제 캔버스에서만큼은 태양을 흠뻑 받으며 화려하고 독특하게 아름답다. 그렇게 그녀는 오래도록 그림으로 자신을 식물화한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시각이다. 멈춘 듯한 식물의 시간을 전혀 낯선 것으로 만든 그녀의 그림은 아직도 소란스러운 침묵으로 남아있다. 🍷